

'골든슬럼버' 믿고 보는 원작 소설에 영화적 재미 더했다



강동원을 비롯 김의성, 한효주, 김성균, 김대명 등 실력과 배우들이 가세해 기대를 모으는 설 연휴 최고의 기대작 '골든슬럼버'가 '남한산성', '살인자의 기억법'에 이어 전 세대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원작으로 해 화제를 모았다.

'골든슬럼버'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 남자의 도주극을 그린 영화다. 강동원의 차기작이자 김의성, 한효주, 김성균, 김대명까지 가세한 골든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골든슬럼버'가 '남한산성', '살인자의 기억법'에 이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나이값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강동원·한효주·김성균·김대명 등 출연 설 연휴 신선한 재미 선사할 것으로 기대해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원작 소설 '남한산성'은 대한민국 대표 작가인 김훈 작가의 작품이자 출간 이래 70만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로 폭넓은 독자층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영화 '남한산성'은 원작의 날카로운 문체를 그대로 살려 소설의 주제 의식을 잘 담아낸 것은 물론 드라마적인 긴장감까지 녹여내 2017년 추석 극장가와 국내 유수 영화제 작품상을 휩쓸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얻었다.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김영하 작가의 원작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알려져지며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

범이 새로운 살인범의 등장으로 잊혀졌던 살인습관이 되살아나며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다.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소설에 없던 새로운 설정과 배우들의 흡인력 있는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감독관까지 개봉하며 관객들의 열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에 영화적 재미를 더해 관객들을 사로잡은 '남한산성', '살인자의 기억법'에 이어 '골든슬럼버'가 설 연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본 최고 권위의 나오키상에 5회 노미네이트 되고, 최초로 일본 서점대상에 5년 연속 후보로 오르는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사가 코타로의 원작 소설 '골든슬럼버'는

평범한 소시민이 한순간에 대통령 후보 암살범으로 지목되는 신선한 전개로 전 세계 구독자들을 사로잡은 바 있다. 특히, 강동원은 7년 전 원작을 접하고 영화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영화뿐만 아니라 원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여기에 연출을 맡은 노동석 감독은 원작 소설의 설정은 기반으로 하되, 배우들의 매력과 서술의 공간적 특성 그리고 신해철의 곡 등 한국적 정서에 맞춰 원작을 새롭게 각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적 재미를 더한 '골든슬럼버'는 올 설날 황금 연휴 스크린을 장악할 것이다. 한순간 세상이 주목하는 암살범이 된 한 남자의 도주극에서 비롯된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와 강동원의 새로운 연기 변신, 여기에 실력과 배우들의 결합이 더해져 설 연휴 최고의 기대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골든슬럼버'는 14일 개봉 예정.

'라스' 오지호→김병욱, 성격미남의 반전美 '동시간대 1위'

'라디오스타'에 모인 오지호-김병욱-배기성-도지환 전한 외모의 미남들이 끼 많고 재주 많은 '성격미남'임을 입증했다. 외모 덕분에 악역을 맡아도 끝에는 착해진다. 오지호를 비롯해 60세 환갑 전 집장만 목표를 드러낸 김병욱 등 개성 넘치는 외모로 각자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던 네 사람은 이번 방송을 통해 수려한 입담과 화수분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 하여금 그들의 기적적인 인생을 응원하게 만들었다. 그런가하면 MC 만형 김국진은 결혼을 발표하며 MC 동생들에게 큰 축하를 받았고 방송 내내 호랑이 기운을 광광 쏟아냈다. 그런 그에게 '라디오스타' 제작진들은 기회를 틈타 CG로 그를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 등 '라디오스타' 식 결혼발표 축하

하심물을 건네 시청자들을 뽀개 만들었다. 시청률 역시 동시간대 1위이다. 지난 7일 수요일 밤 방송된 고평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 (기획 김구산 / 연출 한영홍)는 '미남이긴 하지만요' 특집으로 오지호-김병욱-배기성-도지환이 출연해 외모만큼이나 수려한 입담을 뽐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 1부, 2부는 각각 수도권 기준 6.0%, 6.7%를 기록하며 시청률이 상승,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은 시대만 잘 만났으면 한 획을 그었겠지만 시대를 비껴가서 아쉬운 네 명의 미남 배우, 가수들이 한데 모여 시작부터 수다가 폭발했다. 전성기 시절 '금성무'를 닮은 외

모로 시대를 누린 오지호는 다방면에서 방송을 주도했다. 그는 '외모'로 인해 감독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며 악역을 두 번 밖에 하지 못한 고민을 토로했는데 과거 첫 영화 '비인'의 촬영 에피소드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파격적인 영화로 인해 90%가 누드였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상비가 적게 들었겠다'는 MC의 말을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베드신이 힘들었던 거 밖에 기억 안 난다"고 시원하게 받아 치는가 하면 스스로 신체 부위를 가리는 '공사'를 했다고 말해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했다. 암산 실력은 말 그대로 감돌아왔다. 개인기로 암산을 준비한 오지호는 배기성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즉석에서 불려지는 세 자리 숫자 10개를 더했는데 바로 정답을 맞춰 모



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 특히 타 방송에서 씨름 장사 강호풍과 허벅지 씨름을 이겼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즉석에서 배기성과 허벅지 씨름을 해 무패 행진을 이어가 또 다시 놀라움을 안겼다. 시원시원한 결혼 비하인드도 눈길을 끌었다. 아내와의 첫 만남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일주일 안에 또 생각이 나면 전화번호를 받아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오지호. 그는 클럽을 끊는 등 과거의 화려한 삶을 정리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식 기자회견서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때였는데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지나갔다"고

속마음을 밝히기도. 그런가하면 사제업자, 청부업자, 시기꾼 등 악역 전문 배우 김병욱은 시 한 수를 멋드러지게 읊어 모두를 매료시키는 한편 기적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웃픈 얘기로 모두가 그를 응원하게 만들었다. 김병욱은 "차 보충, 신용 대출 이런 걸 많이 했다. 저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거다. 거기 말이 걸리 있는 줄 알았다. 내가 사는 게 기적이더라"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MC 김구리의 제안으로 등에 떠밀려 아내에게 영성편지를 쓰게 된 김병욱은 "어보 고마워 20년 더 살면 80세 되는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기적이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면서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김병욱은 가족들에게 60세 환갑까지 집 장만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바람을 드러냈는데 "그 때까지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해 모두를 뽀 터지게 했다. 오지호, 김병욱 뿐 아니라 배기성과 도지환의 활약도 빛났다. 배기성은 히트를 친 드라마 O.S.T '내 생애 봄날'으로 인해 생긴 '건달' 에피소드를 시선을 강탈하는 한편 곳곳에서 입담을 뽐내고 다른 게스트들을 어시스트하며 웃음을 뽐낸 터트렸다. 도지환 역시 뛰어난 신체 개인으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얼굴 도장을 찍었다. 그런가하면 이날 방송은 결혼을 공식 발표한 MC 만형 김국진을 향한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은 MC 동생들의 배려 있는 축하 인사, 그리고 조금은 틀려 방송 내내 호랑이 기운을 광광 쏟아낸 김국진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배기성의 허벅지 힘 테스트를 위해 그의 발에 영덩이를 올려놓았던 김국진은 배기성의 힘 조절 실패로 난데없는 공중무양을 하게 됐는데, 제작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CG로 그를 영화 우주까지 쏘아 올리며 그의 결혼 발표 축하 선물(?)을 선사해 시청자들을 배꼽 잡게 했다.

영화 '패딩턴2', 터지는 폭소에 화끈한 액션까지



영화 '패딩턴2'의 주인공 패딩턴이 변함없이 귀여운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섬세한 CG로 구현된 패딩턴의 생생한 외양이 실사와 어우러져 현실감을 더했으며, 동화

같은 분위기와 현실을 오가는 짜임새 있는 전개가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편에서 런던 적응을 마친 패딩턴은 이번엔 도심에서 벌이는 소동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웃음과 액션을 선보였다. 8일 개봉한 '패딩턴2' (감독 폴 킹)는 런던 생활 3년 차, 자칭 알바 마스터가 된 패딩턴이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이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아기 곰 시절, 물에 빠진 패딩턴을 구하는 루시 숙모의 모습으로 시작한 이번 영화는 위기 속에서도 마멀레이드 샌드위치를 먹으며 웃음 짓는 패딩턴의 열골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무장해

제시킨다. 천진했던 패딩턴은 어느덧 의젓한 곰으로 성장하고, 런던 생활을 꿈꾼 루시 숙모를 대신해 본격적인 런던 생활에 임하며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된다. 이때 브라운 가족의 일원이 된 패딩턴이 숙모의 생일 선물을 찾던 중, 런던의 명소가 인체적으로 담긴 팝업북을 발견하고 이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순수한 패딩턴이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따뜻한 웃음을 자아낸다. 이발소 보조로 일을 시작한 패딩턴이 실수로 손님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는 장면은 패딩턴 특유의 클래식 코미디로 폭소를 유발하고, 자신의 털을 이

용해 창문 뒤편으로 나신 패딩턴의 재치 넘치는 면모는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는 극 초반 패딩턴의 구김살 없고 천진한 면모를 극에 녹여내 사랑스러움을 배가시킨다. 더불어 사건의 중요도 열쇠가 되는 팝업북을 통해 동화적 면모를 강화시킨다. 팝업북을 넘기면 런던의 명소가 드러나게 되고, 이를 자연스럽게 영화 속 모험으로 보는 이들을 불러들인다. 디테일한 CG로 재현된 패딩턴의 귀여운 면모는 물론, 동화적 설정과 현실을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팝업북의 존재가 몰입도를 높인 것. 여기에 팝업북을 노리는 한물간 스타 피닉스(휴 그랜트)가 악역으로 등장해 묘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특히 피닉스가 고물상에 있던

팝업북을 훔쳐내고, 이를 패딩턴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극의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 변장한 동네 스타 피닉스를 뒤쫓아 가며 패딩턴이 벌이는 활극은 의외의 화려함으로 불거리를 충족시킨다. 친구인 펄들이 개를 타고 달려며 범인을 쫓는 패딩턴의 한바탕 소동극이 흥미진진함을 더한다. 이렇듯 '패딩턴'은 가족 모험물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살린 익숙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재치 넘치는 장면을 통해 시원한 웃음을 자아낸다. 여기에 화끈한 액션과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져 시각적 볼거리를 충족한다. 더불어 몇몇 시퀀스에서는 패딩턴이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배척하려는 권위적인 인물들 종자해 웃음을 자아내는 묵직한까지 갖춰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음력 12월 24일)

<p>▶ 쥐 불안함과 방황하는 마음이 추진 중인 사업에 영향을 끼치겠다. 가까운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마음을 안정시킬 듯. 먼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자세가 해답을 줄 듯. 5, 8, 10, 12월생 등산 중인 이는 하산 시 발 조심하라. 병원에 입원할 운이다.</p> <p>▶ 돼 생각하는 것이 위태로워 보이니 약간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이 된다. 1, 3, 4, 8월생 약간의 재물이 따르나 허황한 꿈을 꾸니 금전 손실이 뒤따를 듯. 부부 갈등을 없애고 싶다면 신혼 여행지를 다시 여행하는 것도 좋겠다.</p> <p>▶ 호랑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주어진 일에만 성실히 임하라.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주니 귀담아들지 말라. 4, 5, 8, 10월생 심신이 피로하고, 매사 힘들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소, 뱀, 양, 닭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p> <p>▶ 토끼 인생은 좌절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확신을 갖고 무슨 일든 긍정적으로 추진하라. L, B, O, Z 성씨 변동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라. 오늘 사랑의 전화벨이 울릴 듯.</p>	<p>▶ 용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행복 또한 스스로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운다 해서 당시 인생을 타인이 살아주지 않으니 고독에서 해방하라. 1, 3, 5, 10월생 애정 만족감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p> <p>▶ 닭 오곡백과가 무성하니 혼자라는 외로움은 있어도 마음은 부자다. 하지만 애정은 마음의 갈등을 겪을 수. 부부 갈등을 풀고, 불만이 있으면 그 문제점만 놓고 대화할 때 길이 열릴 듯. 1, 5, 7월생 변동은 삼갈 것. 소, 토끼, 용띠를 멀리하라.</p> <p>▶ 말 부모 형제는 그대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기다림에서 벗어나 자신을 추슬러라. 그, B 성씨 현재 미혼 남자는 지금 진행하는 결혼 문제는 다 익은 과일과 같이 손으로 따면 내 것이 되련만 4, 9, 12월생 단호히 결정함이 좋을 듯.</p> <p>▶ 양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것이 싫으면 주인이 돼라.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전진하면 미래에 길이 열리겠다. 1, 4, 12월생 어떠한 일이라도 분명하게 알지 못 하면서 '착' 하는 마음으로 나서면 도리어 해가 돼 돌아옴을 알라.</p>	<p>▶ 원숭이 무엇이든 완전 결할 수는 없다. 완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힘든 고비는 누구에게나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맛 좋은 고기는 가시가 많듯 주변 조언에 귀를 기울여 사, O, Z 성씨 묵은 정신 쓰레기를 버리라.</p> <p>▶ 개 인생에는 여행연습이 없는 법. 자기 본분을 지키라. 자기 처신과 행동을 반성할 때. 애정 문제로 연연하다 모든 것을 놓칠 운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라. 2, 3, 5월생 먼 여행이나 드라이브로 기분을 전환함이 어떨지. 서북쪽이 길한 방향이다.</p> <p>▶ 표범 새로운 구상이나 변동을 하고자 할 때는 가족과 의논해 처리해야 만사가 편할 듯. 다, Z, P 성씨 지나친 효의를 경계하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1, 6, 7, 11월생 서정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p> <p>▶ 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건강을 지키라. 혼자 최고일 순 없는 법. 그, B, O, Z 성씨 신경과민 탓에 우울증에 시달리겠다. 4, 5, 12월생 방향 하지 말라.</p>
---	---	--